

【 주간포커스 】

Solvency II 와 유럽 보험산업

변혜원 연구위원

유럽 보험산업의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 II는 2012년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. 동 제도는 위험을 세분화하여 자본요구량을 제시하는 한편, 역내 보험회사들에게도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. 최근 유럽 보험산업에 대한 Solvency II의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, 동 제도는 산업 내 인수·합병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2012년 말부터 유럽 보험산업에 적용될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 II는 지역 내 보험회사들의 자본 요건과 위험관리 기준을 강화할 것임.

- 현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 I 은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위험의 정도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, 투명성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.
 - Solvency I 에서 요구하는 최소 자본요구량은 회사 간 또는 국가 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, 시장 및 운영리스크 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음.
- Solvency II¹⁾는 유럽지역 보험회사들에게 일관적인 기준을 제공할 것이며, 보험회사가 세분화된 위험을 반영하는 자본량을 확보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됨.

□ Solvency II의 지침(Level 1 Framework Directive)이 유럽의회에서 합의됨에 따라 규제와 관련된 대차대조표 작성 방법 및 주요 구성 요소 등은 사실상 확정되었고 계량영향분석 단계 등이 남아있는 상태임.

- 현재 보험연금감독위원회(CEIOPS: the Committee of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Supervisors)를 중심으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있음.
- Solvency II는 유럽연합의 4단계 법규 제정과정을 통해서 구축되고 있음.
- 현재 CEIOPS는 제5차 계량영향분석(QIS5: The Fifth Quantitative Impact Study)을 올해 10월까지 실시하고, 조사 결과를 Solvency II에 반영하여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²⁾

1) Solvency II는 양적 필요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Pillar1, 보험회사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, 효과적 통제에 대한 필요조건과 관련된 Pillar2, 공시와 투명성 필요조건과 관련된 Pillar3으로 이루어져 있음.

<표 1> Solvency II 도입 단계

	내용	개발주체	결정주체	일정
1단계	Solvency II 지침	유럽집행위원회 (European Commission)	유럽의회(European Parliament), 유럽이사회(European Council)	- 유럽의회(2009.4.)와 유럽이사회(2009.5)의 채택 - EU공식저널에 출판 (2009.10 - 12)
2단계	구체화된 시행방법	유럽집행위원회	EIOPC ¹⁾	- CEIOPS 협의 기간 (2009.3 - 2010.1)
3단계	감독 일관성을 향상하기 위한 지침	CEIOPS	CEIOPS	- CEIOPS의 Solvency II 최종 지침 완료(2011.12. 예정)
4단계	준수여부 감시 및 집행	유럽집행위원회	유럽집행위원회	-

주: 1) European Insurance and Pensions Committee

자료: CEA, "Solvency II: Understanding the Process," 2007.

Morgan Stanley and Oliver Wyman, "Solvency 2: Quantitative & Strategic Impact - The Tide is Going Out," 2010.

□ 최근 Morgan Stanley/Oliver Wyman은 CEIOPS의 가이드라인을 따른 QIS5 모형을 이용하여 Solvency II가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결과들을 제시함³⁾.

- 지급여력 하락을 경험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, 특히 상호회사를 포함한 소규모 보험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.
- 그 결과, 보험산업 내 인수·합병이 증가하는 등 보험회사의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임.

□ Solvency II가 시행되면, 대다수 유럽 보험회사들은 지급여력비율 하락을 경험하고, 보험산업 내 인수·합병이 증가할 것임.

- 아울러 새로운 제도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기존의 사업모형을 재평가할 것이며, 투명성 요구에 따라 인수·합병을 통한 전략적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.
 - Solvency II 하에서 보험회사가 상품을 다각화할 경우 자본요구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다각화 유인이 인수·합병을 촉진할 것임.
 - 또한 새로운 제도를 준수하기 어려운 소규모 회사들이나 투명성 요건들로 인해 재무구조가 불안한 회사들이 인수·합병의 대상이 될 것임.

□ Solvency II가 시행되면, 다각화된 다국적 재보험사가 상대적 승자가 될 것이며, 상호회사를 포함한 소규모 보험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

2) FSA, "Delivering Solvency II," June 2010.

3) Morgan Stanley and Oliver Wyman, "Solvency 2: Quantitative & Strategic Impact - The Tide is Going Out," 2010.

- 다국적 종합보험회사, 다국적 생명보험회사, 재보험사, 순수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가상의 4개 유럽 보험회사에 대한 Solvency II의 영향을 추정함.
- 추정 결과, 순수 손해보험회사의 자본요구량이 상당히 증가하여 지급여력비율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재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역시 상당히 하락
- 이 때문에 Solvency II 하에서는 위험을 전가하여 자본요구량을 줄이는 수단으로서의 재보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□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상품 및 자본과 관련된 다양한 전략의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.

- 새로운 제도는 배당형 계약에 대한 자본요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회사들은 배당형 상품의 판매를 줄일 가능성이 있음.
- 자본 확충이 쉽지 않은 상호회사나 전업 보험회사 등은 재보험을 활용하여 위험을 줄일 것으로 예상됨.
- 자산부채종합관리(ALM)가 강조되면서 보험회사들의 자산배분 결정이 자산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
- 인수·합병의 증가가 예상되며, 제도 도입으로 재무제표에서 추가로 드러난 불안정성은 적어도 단기적인 자본비용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.
-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상품 개발과 이에 따른 복합 상품이 늘어날 것이고, 자산 운용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될 것임.
- 다각화를 통해 자본요구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다각화의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(재무)구조로 전환할 것임. KiRi